

유업체, 상반기 매출 '괜찮네'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메이저 유업체들이 사상최대 매출액을 내는 등 유업체 상반기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우유는 올해 순이익 116억원 목표에 6월까지의 단기순이익 154억원을 달성, 올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유부분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0%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하임 등 잉여원유를 소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이템이 매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매일유업이나 남양유업도 사상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상태다.

남양유업은 2009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7%상승했으며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은 5000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떠먹는 불가리스’ 등 신제품 출시가 좋은 반응을 얻은데다 ‘옛흙주스’ 등 주스시장 진출도 괜찮았다"며 "이 상태로 간다면 연 목표였던 1조원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떠먹는 불가리스’는 하루 50만개 정도가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유업도 창사 40주년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약 20%가량 올랐으며 상하목장 우유, 저지방 우유 등 1등 브랜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카페라떼의 경우 아이돌 모델인 ‘빅뱅’ 효과로 35%이상 매출이 올라가면서 효자품목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업계의 한 전문가는 "유업체의 이런 매출 호조가 우유값 인상에 따른 효과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유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아 우유값 인상과 함께 원가가 올라간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순익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무용론'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지 1달이 지났지만 유통업계는 체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1일 도내 대형마트와 중·소형 축산물판매점 등에 따르면 시고기이력추적제가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해 유통과정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모습 등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일부 대형매장은 제품신뢰도가 높아져 매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홈플러스 삼척점 박창균 축산부 선임은 "정육판매의 특성상 고객들이 개체식별번호보다는 판매자를 통한 대면 문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매출과 관련된 효과는 없었고, 이력제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 축산물판매업체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마련할 형편도 안되고 고객들이 문의도 하지 않는데 굳이 개체식별번호를 활용한 쇠고기 이력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김은주 원산지담당은 "쇠고기 이력제 시행 뒤 한 달동안 547곳을 점검한 결과 약 6%에 해당하는 35개소 업체가 표기 등을 위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EU FTA 피해 추정액 '너무 큰 간극'

정부 "15년차부터 연간 2,300억원 수준" / 양돈·낙농업계 용역결과 5,000억 달해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규모와 충격 정도를 너무 안이하게 전망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 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인 EU에 농축산물시장을 활짝 열어주게 됐는데도 예상 피해액을 농민단체의 추정치보다 훨씬 적게 잡고 있어서다.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2,3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정치는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FTA가 2011년에 발효될 경우 2025년 국내 농축산업 생산감소액이 FTA가 없을 때보다 2,300억원 정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15년차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이 때쯤이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장장관은 이 같은 추정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민단체 등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정부 추정치를 훨씬 웃돈다. 대한양돈협회는 건국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EU FTA 양돈분야 예상 피해가 4,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칠레·EU와의 FTA로 예상되는 피해액 1조800억원 중 EU산의 수입비중(40%)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김민경 건국대 교수와 박종수 충남대 교수 등의 연구용역 결과 연간 1,02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잉여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와 원유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원유 생산량은 214만이고, 이 중 13%인 28만이 잉여원유로 추정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한 관계자는 “관세가 전혀 없는 무관세쿼터(TRQ·저율관세할당)를 과다하게 내줌에 따라 EU산 낙농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됐다”며 “국내 백색유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즈·분유 등의 가공품시장마저 EU에게 빼앗기게 되면 한국 낙농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통상전문가는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2001년 9억1,000만달러에서 2007년 18억6,700만달러로 6년 동안 9억5,700만달러(1조2,400억원)나 늘었다”며 “FTA가 없더라도 EU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는 (FTA에 따른) 정부의 추정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계는 정부가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를 적게 잡을 경우 피해 보완 대책도 부실하게 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농업계는 “한·EU FTA 협상 과정과 결과를 신속히 공개, 농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피해액 등을 산출한 뒤 FTA의 최종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 다논코리아 무주 유기공장 영업허가

전북도는 무주군에 들어선 프랑스 다논(Danone)코리아 축산물 유기공장에 대해 신규 영업을 허가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논코리아 무주공장은 우선 도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주 10t씩 시범 처리할 계획이다.

건축면적 8천㎡ 규모로 조성된 다논 무주공장은 2012년까지 총 1천억 원을 투자해 하루 100t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LG생활과학에서 다논 유제품의 유통과 판매, 마케팅을 맡는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논코리아는 45개국에서 연간 450만t의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수,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가 마무리되면 현재 30명인 일자리가 3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청정 무주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원료의 수급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